

##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나 지 나**  
(이화여자대학교)

**백 승 애**  
(이화여자대학교)

**신 은 경**  
(이화여자대학교)

**김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노후준비를 통한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현재 결혼해체를 경험한 무배우자 베이비부머 여성의 노후준비의 현황과 이들의 노후준비 여부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007년 여성가족패널 1차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인을 소인특성변수와 가용자원변수, 필요변수로 구분하였고 노후준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 유형 중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사별, 별거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월세, 자가, 전세 순이었고 취업 한 경우가 66%를 차지하였다. 둘째, 결혼해체경험 여성들의 23.4%만이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베이비부머, 결혼해체 경험 여성, 경제적 노후준비

\* 교신저자: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kmh@ewha.ac.kr)

■ 투고일: 2010. 9. 29    ■ 수정일: 2010. 11. 10    ■ 게재확정일: 2010. 12. 5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고령자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경제문제가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통계청, 2006). 이는 고령층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세대와 달리, 노인세대의 빈곤은 장기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적 대책이 더욱 요구된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대거 은퇴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노후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의 다양한 계층별 분석을 통해 대상별 욕구에 부합하는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 한정하여 그들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수적인 규모에 있다. 2009년 한국 통계연감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45-54세 전체 인구 중 사별 및 이혼여성인구는 약 43만 명으로 남성인구 약 27만 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리고 결혼해체 유형 현황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35-44세 여성은 사별 약 27천명, 이혼 약 142천명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베이비부머 여성의 사별인구수는 약 158천명, 이혼인구수는 약 274천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이는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우 사별은 전 연령대보다 5.7배 높고, 이혼은 약 2배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베이비부머는 이전 연령대와 달리, 사별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전 생애 주기에서 이혼수가 가장 많이 분포된 연령대이다. 이렇듯 베이비부머 중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수적 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들의 노후준비의 실패는 고스란히 미래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빈곤에 취약한 집단이다. 미래노인세대로서 베이

비부머 중 여성은 결혼해체 후 실질적인 가구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김안나, 2007; 최희경, 2004b). 지난해 여성가구주의 상대빈곤율이 17.0%로 남성 가구주 상대빈곤율<sup>1)</sup> 6.6%의 세 배에 달하며, 1982년과 비교한 빈곤 상승률 역시 남성 가구에 비해 높아 여성 가구의 빈곤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성명재, 2009). 이렇듯 전체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현실은 그만큼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미흡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것은 곧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빈곤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히 노후의 상황과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기 이전의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최옥금, 2007). 다시 말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진입할 위험이 높은 베이비부머 결혼해체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예견되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 연구 대부분은 주로 유배우자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며,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결혼해체를 통한 빈곤과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집중되어 있을 뿐(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김수정, 2007; 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이들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결혼해체관련 연구 중 베이비부머나 중년층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특징을 보여주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수급 가능한 65세 이상인 노년 시기를 예상하고 공적연금수급권에 대한 성불평등적 구조를 보고한 연구(권문일, 2003; 이해경, 2004)를 제외하면,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또한 미혼과 같이 결혼제도 범주에서 이탈한 여성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다룬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층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여성들 중에서, 결혼해체를 경험한 무배우자 여성들의 경제적 노후 생활 준비상태를 분석하고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노후 생활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이들의 10년 뒤 노년

1)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층 진입을 대비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2. 이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3. 이들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변인의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베이비부머

베이비붐은 특정 시기에 출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 출산이수가 폭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을 베이비붐시기라고 통칭하고 있다(한국인구학회, 2006). 2009년 통계청 자료를 비롯하여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산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 세대는 약 713만 명으로 총 인구의 15.2%에 해당한다(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그리고 2006년 경제활동인구의 29.4%나 차지하는 거대한 출생 집단군(최성철, 2007)인 베이비부머는 수적 다수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존질서와 가치관, 사회시스템에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를 전환 내지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계적 다수”라고 불리기도 한다(함인희, 2002: 232).

나일주·임찬영·박소화(2008)는 베이비붐 세대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과 생활의식을 소유하고 있고, 노년기를 자기실현 기회 또는 제 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등 과거 노인층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며 베이비부머가 가진 긍정적 자원을 제시하였다. 다른 측면으로 베이비부머는 부담이 많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0). 이들은 자녀의 대학 교육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99.1%) 베이비부머의 부모 중 약 70%는 생활비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의 결혼 준

비도 부모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90.0%)하여 부모 부양과 자녀지원의 부담이 병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체 인구보다 ‘만족’ 비율은 낮고,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세대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가정불화’와 ‘외로움·고독’에 심적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 발전의 주역이며,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여겨지지만 수적으로 다수인 인구수와 길어진 노년의 삶에 대한 개인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세대이며 실제로 과거 시대의 노인과 다른 시대를 살아온 베이비붐 세대라 하더라도 은퇴 이후의 삶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나일주 외, 2008).

본 연구는 가장 많이 통칭되는 1955년부터 1963년에 출생한 인구를 베이비부머라고 보고 노후준비 연구에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결혼 해체 즉, 이혼이나 사별, 별거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볼 것이다.

## 2.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

결혼해체라는 경험은 사별, 이혼, 또는 별거와 같은 형태로 배우자와의 분리 혹은 부부 생활의 종결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결혼해체 경험 무배우자 여성은 별거, 이혼, 사별을 경험한 여성들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 수준의 변화 및 빈곤 문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혼율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최근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오고 있다. 서구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부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과 빈곤 문제에 관한 종단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그 연구의 범위와 영역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노혜진, 2008).

결혼해체 여성과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들이 빈곤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은 해체 이전보다 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가구소득

및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율은 증가하였다(Holden & Smock, 1991; Bianchi et al., 1999; Jarvis & Jenkins, 1999; Poortman, 2000; Manting & Bouman, 2004; Uunk, 2004; Avellar & Smock, 2005; 노혜진, 2008). 또한 미국의 경우, 이혼한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유배우자 여성노인과 비교할 때 5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aider, Jackowitz & Schoeni, 2003).

결혼해체 여성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혼여성과 모자가구를 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결혼해체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무배우자인 경우에 여성의 빈곤위험은 증가하며(석재은, 2004; 김수정, 2007) 빈곤의 주요원인은 무직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07). 또한 이혼 후 취업률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배우자 여성이 빈곤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불안정한 부문에 집중고용되기 때문이다(여지영, 2003; 윤홍식, 2004; 김혜영 · 변화순 · 윤홍식, 2008; 노혜진, 2008). 이혼 이후 여성취업 대부분이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임시고용의 형태를 띠며 전체적으로 계급지위가 큰 폭으로 하강한다(변화순 · 김혜영 · 윤홍식 · 한지숙, 2006). 한편 무배우자 여성가구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지영, 2003; 석재은, 2004).

그 동안의 결혼해체여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 대부분이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남성가구에 비해 여성가구가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고 빈곤의 고착화 현상(석재은, 2004; 홍백의 · 김혜연, 2007)까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및 빈곤 수준에 관계없이 결혼해체여성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특성을 광범위하게 보여주거나 경제적 노후 준비의 여부 및 정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3.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상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의 질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즉,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노후준비의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강유진, 2005; 홍성희 · 광인숙, 2006; 박창제, 2008; 이신영, 2009; 조추용 · 송미영 · 이근선, 2009)을 살펴보면, 대체

로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2004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도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경제적 노후 준비율이 2배 더 높았다(정경희 외, 2005).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황승일, 2000; 박미석, 2005; 박창제, 2008; 김양이 외, 2008)이 유배우자 집단이 무배우자 집단에 비해 경제적 노후 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령에 따른 재정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4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대하는데 비하여 실제 노후준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아짐을 밝히고 있다(Anderson et al., 2000; 이신영, 2009 재인용; 박미석, 2005). 반면, 하춘광(2006)의 연구에서는 연령 간 재정적 노후준비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연령을 통해 경제적 노후준비는 자원 확보가 가능한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 중, 학력은 경제적 노후준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황승일, 2000; 박미석, 2005; 이신영, 2009)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율이 높았다(정경희 외, 2005; 이신영, 2009).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연구(McPherson & Guppy, 1979; 임장순, 1990; 김인숙, 1993)가 있으며 홍성희 외(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노후대비 저축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중 결혼해체 경험여성들 집단에서도 학력의 차이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여러 조사에서도 소득과 자산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의 연구(김성희, 1996; 신하연, 1997; 이지은, 2000; 송명숙, 2002; 배문조 · 전귀연, 2004; 최혜지 · 이영분, 2005)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산이 많을수록, 즉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 중 공적 연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받을 수 없는 집단에 비해 경제적 노후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더 용이하고 자신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성희, 1996; 이신영, 2009 재인용).

주택자산(소유여부)은 현재 소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소득 지속성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백은영, 2008). 박창제(2008) 연구에서도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주택소유가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주택자산은 노년기 적정 소득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교육은 종종 은퇴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된다(여운경, 2005). 이는 중년기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발달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의 책임을 끝마친 뒤에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홍성희 외, 2007).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은퇴 이후의 자산축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백은영, 2008) 같은 맥락에서 부모역할수행 요인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이 밝혀졌다(강유진, 2005). 본 연구의 대상자들 역시 결혼해체로 인해 무배우자가 된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성년 자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과 관련해서는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후에 경제적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여유 계층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홍성희 외, 2007). 그리고 본인의 주관적 경제적 능력을 낮게 평가할수록 은퇴계획에 따른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성희·곽인숙, 2006). 이러한 결과들은 노년기 이전의 경제상태가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지나 걱정과 실질적 준비 행위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자산, 주택소유, 자녀양육 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며, 또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에 조사한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1차년 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은 결혼과 출산, 양육, 부양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어 중요시기(critical period)나 사건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의 만족도 및 가사분담, 자녀양육, 부모부양 등에 대한 질문을,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 대해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시기, 전 남편의 자녀 양육비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에 대한 인구학적인 정보 외 결혼해체 후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문항과 그들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알맞은 자료라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은 전체 9,068가구의 9,997명 중 결측값을 가진 사례를 제거한 238명이며, 이들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 모형 및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적 분석틀은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을 분석한 박창제(2008)의 연구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박창제(2008)는 Andersen(1995)의 모형과 Yuan(2006)의 모형을 토대로 경제적 노후준비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경제적 노후준비는 개인적으로 인식된 필요에 의해 시작되고 개인이 가진 가용자원에 의해 가능해지며 개인의 소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박창제,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소인적 특성(predisposing characteristics), 가용자원(enabling resources), 인식된 필요(perceived need)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및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인 결혼해체 기간, 결혼해체 유형, 미성년 자녀수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미성년 자녀수는 결혼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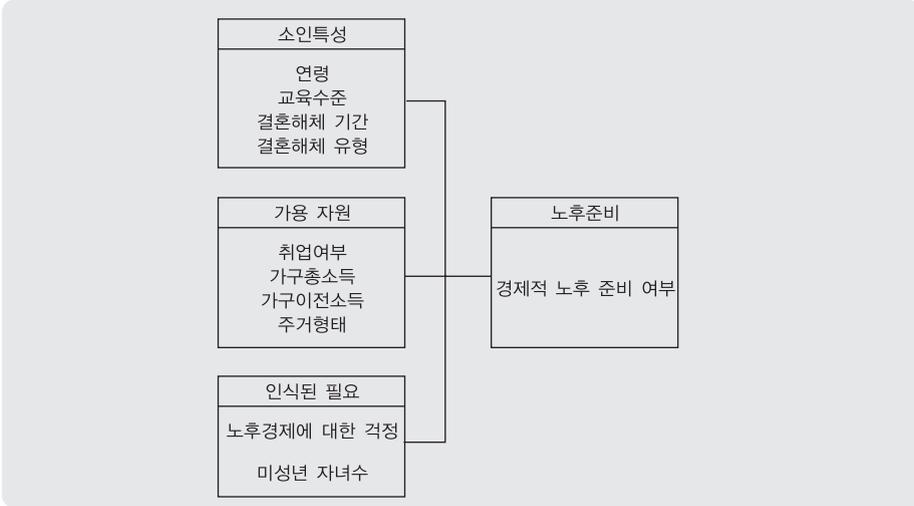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변수 종류		해당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	65세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0=하고 있지 않다, 1=하고 있다)
독립 변수	소인특성 변수	연령 교육수준 결혼해체 기간 결혼해체 유형	만 연령(44~52세) 교육연수 이혼, 사별, 별거를 경험한 기간 이혼=1, 사별=2, 별거=3
	가용자원 변수	취업여부 가구총소득 가구이전소득 주거형태	0=미취업, 1=취업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기타소득)/가구원 수의 제공근 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0=비자가(전세, 월세, 기타 포함), 1=자가
	인식된 필요 변수	노후경제에 대한 걱정 미성년 자녀수	0=다른 상황이 먼저 걱정된다 1=노후경제상황이 가장 걱정된다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 자녀수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인 만큼 노후 준비의 걱정 및 필요성과 관련된 변수라고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종속 변수로는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소인특성변수, 가용자원변수, 필요변수 등 크게 세 범주로 구분된다. 소인특성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비슷한데, 연령, 교육수준, 결혼해체를 경험한 기간, 결혼해체 유형이 포함된다. 가용자원 변수에는 취업여부, 가구총소득, 가구이전소득, 주거형태가 포함되는데, 이 중 가구총소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가구총소득을 가구원의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필요변수에는 미성년 자녀수와 경제적 노후에 대한 염려라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WIN ver.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를 결혼해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혼의 경우가 50.8%(12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별을 한 경우가 44.5%(106명), 별거 4.6%(11명) 순이었다. 여성가족패널 1차 자료가 조사된 시점인 2007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연

령은 44~52세로 평균 48.63세로 나타났다. 40대가 134명(56.3%), 50대가 104명(43.7%)으로 40대가 조금 더 많았는데, 이혼한 경우가 사별과 별거한 경우에 비해 평균 연령이 다소 낮았다.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39.9%(95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 27.7%(66명), 중학교 졸업 26.1%(62명) 순으로

표 2.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별		이혼		별거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40대(44~49세)	53	50.0	75	62.0	6	54.5	134	56.3
	50대(50~52세)	53	50.0	46	38.0	5	45.5	104	43.7
	평균(S.E)	49.20(2.93)		48.02(2.74)		49.82(2.27)		48.63(2.87)	
학력	초등학교 이하	41	38.7	25	20.7	0	0.0	66	27.7
	중학교	29	27.4	27	22.3	6	54.5	62	26.1
	고등학교	32	30.2	58	47.9	5	45.5	95	39.9
	대학교 이상	4	3.8	11	9.1	0	0.0	15	6.3
미성년 자녀수	0명	79	74.5	76	62.8	8	72.7	163	68.5
	1명	15	14.2	29	24.0	1	9.1	45	18.9
	2명	11	10.4	15	12.4	2	18.2	28	11.8
	3명	1	0.9	1	0.8	0	0.0	2	0.8
주거형태	자가	70	66.0	27	22.3	3	27.3	100	42.0
	전세	17	16.0	25	20.7	3	27.3	45	18.9
	보증부 월세	7	6.6	51	42.1	3	27.3	61	25.6
	월세	5	4.7	9	7.4	1	9.1	15	6.3
	무상 및 기타	7	6.6	9	7.4	1	9.1	17	7.1
취업여부	비취업	28	26.4	48	39.7	6	54.5	82	34.5
	취업	78	73.6	73	60.3	5	45.5	156	65.5
가구총소득(만원)		560.26 (438.17)		615.17 (595.09)		567.38 (462.16)		588.51 (523.56)	
가구이전소득(만원)		25.09 (89.39)		68.57 (180.67)		50.73 (86.92)		48.38 (144.35)	
합계		106	44.5	121	50.8	11	4.6	238	100.0

나타났으며 대학을 졸업한 비율도 6.3%(15명)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46.2%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본 연구 대상자인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결혼해체 유형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68.5%(163명), 1명인 경우가 18.9%(45명), 2명인 경우가 11.8%(28명), 3명인 경우가 0.8%(2명)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가 42.0%(100명)로 나타났고, 전세인 경우가 18.9%(45명), 보증부 월세인 경우가 25.6%(61명)로 나타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는 자가로 나타났다. 사별한 경우 자가의 비율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의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가 4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여성은 65.5%(156명)로 비취업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한 경우 취업한 여성이 73.6%, 이혼한 경우 60.3%가 취업한 것과 달리 별거의 경우 54.5%가 비취업 상태였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의 가구총소득은 연평균 588.51만원으로, 이혼한 경우가 연평균 615.1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거는 연평균 567.38만원, 사별은 연평균 560.26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이전소득은 연평균 48.38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혼한 경우가 연평균 68.57만원, 별거의 경우 연평균 50.73만원, 사별의 경우는 연평균 25.09만원으로 나타났다.

## 2.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따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따라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검정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따라 가구총소득, 주거형태, 노후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 미성년 자녀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가구총소득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여성들보다 72.37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4.035$ ,  $p<.001$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가구이전소득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여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

구 분	경제적 노후 준비하고 있다 (N=57)	경제적 노후 준비하고 있지 않다 (N=181)	통계량
연령(세)	48.88(2.873)	48.55(2.866)	t=.745
교육연수(년)	10.09(3.38)	9.32(3.27)	t=1.521
결혼해체기간(개월)	132.70(96.62)	145.19(81.60)	t=-.963
결혼해체 유형			X <sup>2</sup> =2.958
사별	31(29.2)	75(70.8)	
이혼	24(19.8)	97(80.2)	
별거	2(18.2)	9(81.8)	
취업여부			X <sup>2</sup> =1.352
취업	41(71.9)	115(63.5)	
미취업	16(28.1)	66(36.5)	
가구총소득(만원)	145.06(129.85)	72.69(68.44)	t=4.035***
가구이전소득(만원)	7.11(22.20)	8.37(24.67)	t=-.344
주거형태			X <sup>2</sup> =9.565**
자가	34(59.6)	115(63.5)	
비자가	23(40.4)	66(36.5)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			X <sup>2</sup> =9.804**
가장 걱정된다	14(24.6)	87(48.1)	
다른 상황이 더 걱정된다	43(75.4)	94(51.9)	
미성년자수(명)	0.28(0.56)	0.50(0.78)	t=-2.370*

\*p<.05, \*\*p<.01, \*\*\*p<.001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주거 형태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chi^2=9.565$ ,  $p<.01$ ),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따라 노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chi^2=9804$ ,  $p<.01$ ).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보다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자가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따라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자녀수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t=-2.370$ ,  $p<.05$ ).

### 3.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 결정 요인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떤 변수가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소인특성변수, 가용자원변수, 인식된 필요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각 모델을 살펴보면, 먼저 소인특성만 투입한 모델 1의 설명력은 3.3%로(Cox & Snell  $R^2=0.033$ ), 소인특성 변수 중 교육연수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1.115,  $p<0.05$ ). 이는 기존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 정도가 높게 측정된 것(정경희 외, 2005; 이신영, 200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연령은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연령 간 재정적 노후준비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하춘광(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령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대상을 베이비부머 세대로 한정지어, 베이비부머 세대 내 동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모델 1에 가용자원을 투입한 모델 2의 설명력은 12.6%로(Cox & Snell  $R^2=0.126$ ), 이전 모델에 비해 설명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전 모델 1과의 모델 적합성 비교를 위해 Likelihood Ratio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델 2가 보다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chi^2=23.928$ ,  $p<0.001$ ). 소인특성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가구총소득과 주택소유 여부가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구총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은 81.1% 높게 나타나며(odds=1.811,  $p<0.01$ ), 주택을 소유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130.9%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odds=2.309,  $p<0.05$ ). 이러한 결과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노후 준비에 있어 소득과 생활수준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낸 선행 연구(양순미·홍숙자, 2002; 배문조·전귀연,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박창제(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소인 특성	연령	.052	.864	1.054	.021	.111	1.021	-.029	.180	.972
	교육연수	.109	4.320*	1.115	.132	5.100*	1.141	.147	5.932*	1.158
	결혼해체경험기간	-.001	.192	.999	.000	.004	1.000	-.001	.202	.999
	결혼해체 유형		3.235			1.236			.693	
	사별	.829	1.020	2.291	.713	.676	2.040	.629	.501	1.875
	이혼	.240	.083	1.271	.321	.135	1.379	.374	.176	1.453
가용 자원	취업여부				-.287	.531	.750	-.183	.195	.833
	가구총소득				.594	7.999**	1.811	.506	6.798**	1.658
	가구이전소득				-.009	.009	.991	.013	.019	1.013
	주택소유				.837	4.929*	2.309	.791	4.259*	2.205
인식 된 필요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							-.965	6.810**	.381
	미성년자녀수							-.504	2.886	.604
	상수									-4.309
Cox & Snell R <sup>2</sup>			.033			.126			.164	
-2 Log likelihood			253.983			230.055			219.317	
$\chi^2(df)$			8.054(5)			32.982(9)***			42.720(11)***	
Likelihood Ratio Test(df)			8.054(5)			23.928(4)***			10.738(2)**	

기준변수: 결혼해체유형은 별거, 취업여부에서는 미취업, 주택소유에서는 소유하지 못함,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은 걱정하지 않음

\*p<.05, \*\*p<.01, \*\*\*p<.001

소인특성 변수 및 가용자원, 그리고 인식된 필요변수까지 투입한 모델 3의 설명력은 16.4%이며(Cox & Snell R<sup>2</sup>=.164), 모델 2에 비해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 준비를 분석하는데 보다 적절한 모델로 나타났다( $\chi^2=10.738$ , p<.01). 소인특성 및 가용자원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인식된 필요 자원 중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dds=.381, p<.05). 노후 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노후에 건강이나 가족관계, 고독감 등을 더욱 걱정하는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61.9%

감소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게 미성년 자녀수는 그들의 경제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 자녀변수가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504$ ,  $odds=.604$ ).

## VI. 결론

본 연구는 노후 빈곤에 대한 예방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해당하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처럼 특정 욕구를 가진 집단의 경제적 노후 준비여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가진 특징이 어떻게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특성변수 중에서 교육수준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결혼 해체를 경험한 여성들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베이비부머 여성들이 경제적 노후를 준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흔히 교육수준은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Blau and Duncan, 1967; Collins, 1979; 방하남·김기현, 2002),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기존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실제적 준비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소정, 2009),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용자원변수 중 가구소득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의 보유를 의미한다. 특히 가구소득은 현재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결혼해체경험 여성이 노동시장 내에서 어떤 직업적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은 공적연금에 가

입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며 이는 이들 다수가 비정규직, 임시직과 같은 불안정한 직종에 집중 고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상태 및 직종유형이 남녀의 빈곤 수준차이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변화순 외, 2006)과 연관지을 수 있다. 따라서 남성배우자가 없는 이들이 양질의 근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노동시장 내 지위변화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성별직종분리,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 진입의 증가로 인한 성별격차를 좁힐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변화순 외, 2006 재인용).

셋째, 가용자원 중 주택소유 역시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여부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결혼해체 상태인 베이비부머여성의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월세인 것을 고려할 때 매월 일정금액이 주거비로 소비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일정 계층 이상에게 주어지는 주거와 관련된 지원은 미비하다. 따라서 경제적 노후 준비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결혼해체여성 중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며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특히 이들 가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혹은 미래에 경제적 필요를 반영하는 변수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걱정이 다. 노후에 대한 다른 영역의 걱정보다 경제적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노후 준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취약한 특정 대상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 수당과 같은 지원이 마련되어 미래 빈곤노인층으로의 전략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취약계층인 결혼해체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라는 특징과 결혼해체라는 특징이 이들의 노후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이라는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이들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소득, 주택과 같은 자원이 부족할

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어려움은 곧 경제적 노후준비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결혼해체 안에서도 사별, 이혼, 별거와 같이 각기 다른 유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결혼해체 유형에 따른 차이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첫째, 사별, 이혼, 별거에 분포된 연구 대상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점과 둘째, 결혼해체유형의 차이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원 획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해체여성의 특징적 변수였던 결혼해체기간역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결혼해체기간 자체는 이들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의 가장 명확한 원인이 돈의 부족인 것처럼(김미혜 · 정진경, 2007), 재정적 자원을 가진 집단만이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대안책이 현물 혹은 현금 급여, 정규직 직업, 적정수준의 임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미래 사회의 부양 부담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빈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지원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Teresa A(1991)에 의하면 이혼한 이후에 여성가구의 경제상태가 오히려 향상되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 여성가구가주었다. 특히 저임금여성의 경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결혼해체 이후의 부정적 경제 상태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eresa A, 1991). 결국은 이들의 경제 상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이들이 독립적 가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적 안정을 갖게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 교육과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노후 준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인식의 변화나 확대가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 안에서 구체적으로 노후준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독려하는 것이 주요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서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사회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원과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교육 및 훈련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머는 그 이전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서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같은 특정 계층에게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경제적 노후 준비를 촉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계로 인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차이를 통해 결정 요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베이비부머 및 결혼해체경험 여성에 대한 경제적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다차원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재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집중 분석한 것과는 달리, 경제적 노후준비에 사회적 지지망, 건강과 같은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의 변수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지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2월에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가족·노인 정책, 일을 통한 복지실현 등이며,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E-mail: eejuck@naver.com).

백승애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2월에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베이비부머 및 예비노인의 노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정책, 노인사회참여, 빈곤정책 등이다(E-mail: 100tmddo@naver.com).

신은경은 동국대학교에서 국제학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 및 노인복지, 알코올의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역할 등이다(E-mail: ewanlover@naver.com).

김미혜는 미국 Ohio State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노인복지이며, 현재 베이비부머와 노인의 노후 준비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kmh@ewha.ac.kr).

## 참고문헌

-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 40,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6(4), pp.159-174.
- 권문일(2003). 이혼여·별·연금수급권: 분할연금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5, pp.243-273.
- 김수정(2007). 사회권, 배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 격차.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7(1), pp.93-133.
- 김미혜, 정진경(2007).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서울: 동인.
- 김성희(1996).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김안나(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pp.227-256.
- 김인숙(1993).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양이,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pp.55-82.
- 김영민(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일반사회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 김은성 (2009). 지난 해 여성가구주 빈곤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 <http://www.kwwnet.org>.에서 2010.3.5 인출.
- 김혜영, 이은주, 윤희식(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1), pp.5-51.
- 김혜영, 변화순, 윤희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가족학논집), 20(2), pp.37-63.
- 나일주, 임찬영, 박소화(2008). 한국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 한국노인복지학회, 42, pp.151-174.
- 노혜진(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4(4), pp.167-196.
- 박미석(2005).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노후생활준비와 노

- 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pp.1-15.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pp.275-297.
- 방하남, 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266-267.
- 배문조,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pp.89-102.
- 백은영(2008).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사회보장연구, 24(2), pp.27-51.
- 변화순, 김혜영, 윤희식, 한지숙(2006).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3)3, pp.1-141.
- 석재은, 임정(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1), pp.1-22.
- 성명재(2009). 현안분석: 소득분배 동향 고찰.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60, pp.27-50.
- 송명숙(2002).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경기도.
- 신하연(1997). 중년기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중앙인사위원회(2006).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공무원 인사정책의 방향. 중앙인사위원회.
- 양희승(2004). 고령화시대의 도전. LG경제연구원.
- 양순미, 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pp.141-149.
-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pp.21-36.
- 여지영(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윤희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pp.5-27.

- 이미진(2009).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36(1), pp.201-223.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 pp.72-80.
-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pp.205-224.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임장순(1990). 도시인의 노후생활대책에 관한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정경희 외 6명(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09).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6.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2002). 가족복지학. 개정판. 서울: 학지사.
- 조추용, 송미영, 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pp.135-156.
- 최성철(2007). 베이비붐세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익산.
- 최옥금(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pp.5-25.
- 최혜지, 이영분(2005).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pp. 415-435.
- 통계청(2006). 2006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9). 고령화 통계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9). 한국 통계연감.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대전: 통계청.
- 히춘광(2006).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실버타운 선호도가 실버타운 입주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4(4), pp.201-224.

- 한국인구학회(2006). 인구대사전. 대전: 통계청.
- 함인희(2002). 한국 여성과 출산율: Baby Boom 탈출, Baby Strike 진입. 서울: Koreana Korean. 한국국제교류재단.
- 홍성희, 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pp.193-207.
-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구.
- Avellar, S., Smock, P.(2005).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dissolution of cohabiting un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pp.315-327.
- Blau, P. M., O. D.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ianchi, S., Subaiya, L., Kahn, J.(1999). The gender gap in the economic wellbeing of nonresident fathers and custodial mothers. *Demography*, 36, pp.195-203.
- Collins, R.(1979). *The Credential Society: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 Holden, K., Smock, P.(1991).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why do women bear a disproportionate cos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pp.51-78.
- Jarvis, S., Jenkins, S.(1999). Marital splits and income changes: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Population Studies*, 53, pp.237-254.
- Mauldin, Teresa A.(1991).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or Separation Among Women in Poverty.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4(3), pp.163-178.
- McPherson, Guppy.(1979). Preretirement life 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 pp.254-263.
- Manting, D., Bouman, A.(2004). Short and long 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union dissolution: the case of Netherlands. *3rd Conference of the European Research Network on Divorce*, pp.1-24.
- Poortman, A.(2000). Sex differences i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separation: a panel study of the Netherland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6, pp.367-383.
- RONALD M. ANDERSEN.(1996).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 Steven J. Haider, Alison Jacknowitz, Robert F. Schoeni.(2003). *The Economic Status of Elderly Divorced Women*.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 Uunk, W.(2004).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for women in the European Union: the impact of welfare state arrangement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0, pp.251-285.
- Yuan, Sarah Chui-Wai.(2006). *Determinants of Awareness and Knowledge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Future Care Needs among Older Adul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A Study On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Of The Korea Babyboomer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Na, Gi Na**

(Ewha Womans University)

**Baek, Seung Ae**

(Ewha Womans University)

**Shin, Eun-Kyoung**

(Ewha Womans University)

**Kim, Mee-Hye**

(Ewha Womans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ir determinants affecting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of Korea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among baby boomers. Data of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2007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ere 238 women widows or in divorce or separation. The analysis of data employ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and Park, Chang Je's model.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s of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nabling resources, perceived need and dependent variable consist of preparation for aging.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portion of the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among baby boomers with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was low; 23%. Secondly, education level, monthly family income, housing ownership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ird, the concern of economic condition for aging is the negative factors on preparation for aging. However, the type and duration of marital dissolution did not give a significant effect on it.

---

**Keywords:** Babyboomer,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